

2017년 5월 18일, 안덕면 광평리 박만희 씨 덕, 김승연 조사.

제보자1: 박만희(여, 1934년생, 안덕면 광평리)

- 줄거리: 높은 나무에서 까마귀가 알을 낳으려 하는데, 오소리가 알을 하나 주지 않으면 까마귀까지 잡아먹겠다고 했다. 무식한 까마귀가 메추라기에게 물어보니 오소리는 나무에 올라오지 못하니 알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었다.

[조사자] 옛말 골아줍서.

[제보자] 옛날 막 아버지네 곧는 거 들어났인디 다 잊어불언. 나, 춤 으 먼저도 골앗주만 은 우리동네 하르방덜 다 모여 앉주게 앓으민, 가마귀가 높은 낭에 앓앙 새끼 낳젠 허여그네 행 지달이 높은 강

“새끼 하나 줘.”

헤그네

“아이 주민 확 올라강. 너도 다 먹어불키엔.”

허민 이제 그 새끼 하나 톱 털어진 죽이켄, 말젠 또 누게안티 들으난, 지달인 올라가지 못하는 거난 건 말로 그짓말이주게

“경 주지 안 해도 댜덴.”

헨 골으난 이젠, 댜디 말젠 아이 주난 뭐 순작이 나완에 이젠 오랜 헛젠 헤냐 어떻 연, 순작 으레 가다그네 으디 뭐 싯젠 강 즐락 가고 즐락 가고 헛단 보난 어느 천릴 가졌어렌 했고나마는.

[조사자] 예 그 순작이 무시거봐?

[제보자] 순작?

[조사자] 예 순작.

[제보자] 순작, 생이보단 큰 거. 생이 높은 거.

[제보자] 생이 두 개만이 허우다게.

[조사자] 거문 거기서 제일 으망진 거는 누게파, 까마귀가 똬 거파?

[제보자] 까마귀 게난게 무식헌난게 새끼 득렌 헛난 줘 불단 보난 그 순작이 오라네 저

“가마귀 아주망 하도 경 주지 맙서. 지달인 가름뵈?지도 못 넘는 놈.”

헛거든 헛난 안 줘주게 안 똬 순작이영 곱이 댜이멍 헛주게.

[조사자] 경 헤그네에 옛날 아버지네가 골아난 말예.

- 핵심어 : 까마귀, 지달이, 순작, 메추라기, 오소리